<h1>나 혼자만 레벨업-64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a507e4aa2c4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4화</p>  
<p>[그림자 추출에 성공했습니다.]</p>  
<p>'그렇지!'</p>  
<p>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보스 레이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.</p>  
<p>김철의 그림자에서 튀어나온 검은 기사는 김철의 원판보다 훨씬 크고 두꺼웠다.</p>  
<p>거기다 한손에 들린 거대한 망치.</p>  
<p>다른 손에는 성인의 키만 한 방패를 들고 있어 위압감이 엄청났다.</p>  
<p>'김철도 근육질의 덩치였는데 이 그림자는 정말...'</p>  
<p>긴박한 와중에도 진우의 입에서 감탄성이 흘렀다.</p>  
<p>[병사의 이름을 정해 주십시오.]</p>  
<p>'아, 이름.'</p>  
<p>진우가 슬쩍 곁눈질했다.</p>  
<p>감당하기 벅찬지 이그리트는 보스에게 밀리고 있었다. 재생력을 이용해 간신히 시간만 벌고 있는 상황이었다.</p>  
<p>스걱!</p>  
<p>방금 이그리트의 한쪽 팔이 잘려 나갔다.</p>  
<p>'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.'</p>  
<p>이름.</p>  
<p>아무거나, 그냥 김철로 할까?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아니, 그래도 살아 있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언데드를 부리기에는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.</p>  
<p>'그래, 김철. 철이니까 아이언!'</p>  
<p>이름을 정했다.</p>  
<p>진우가 결정을 내리자마자 새로 태어난 그림자에게 이름이 하사되었다.</p>  
<p>[아이언 Lv.1]</p>  
<p>기사 등급.</p>  
<p>기사 등급!</p>  
<p>이그리트와 같은 등급이었지만 기뻐하고 있을 틈은 없었다.</p>  
<p>'꾸물거릴 시간이 없어!'</p>  
<p>진우가 보스를 향해 턱짓했다.</p>  
<p>"아이언!"</p>  
<p>아이언이 육중한 몸을 뒤흔들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.</p>  
<p>쿵, 쿵, 쿵!</p>  
<p>덩치 하나는 마음에 들지만 저 속도로 민첩한 보스를 건드릴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.</p>  
<p>아이언이 가슴을 펴고서 함성을 내질렀다.</p>  
<p>우워어어어-!</p>  
<p>'뭐지?'</p>  
<p>당황해 하는 진우의 눈앞에 메시지가 연달아 떴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이언이 '스킬: 도발의 함성'을 사용합니다.]</p>  
<p>[던전의 주인이 도발 상태가 됩니다.]</p>  
<p>"도발 스킬!"</p>  
<p>김철은 A급 탱커였다.</p>  
<p>당연히 높은 수준의 어그로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고, 그의 그림자인 아이언은 그 스킬을 완벽히 재현해냈다.</p>  
<p>보스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.</p>  
<p>눈앞에 당장 끝장낼 수 있는 이그리트를 두고 귀신에 홀린 것처럼 아이언을 향해 달려들었다.</p>  
<p>아이언은 '강화' 스킬을 사용해 매섭게 꽂히는 보스의 단검 공격들을 버텨 냈다.</p>  
<p>'좋아!'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그사이 이그리트의 잘렸던 팔이 복구되었다.</p>  
<p>스르르르</p>  
<p>절단면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검은 연기가 뭉쳐지더니 곧 온전한 팔이 됐다.</p>  
<p>보스는 아직 아이언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.</p>  
<p>진우와 이그리트의 협공이 시작됐다.</p>  
<p>'...'</p>  
<p>박희진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.</p>  
<p>너무도 비현실적인 장면이었다.</p>  
<p>더 이상 물어보고 싶은 맘조차 생기지 않았다.</p>  
<p>옆에서 한송이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물어 왔다.</p>  
<p>"언니..."</p>  
<p>박희진이 뒤늦게 반응했다.</p>  
<p>"어, 응?"</p>  
<p>"헌터들의 싸움이란 게 다 저런 식이에요?"</p>  
<p>겁을 먹었는지 한송이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.</p>  
<p>박희진이 먹먹한 심정으로 대답했다.</p>  
<p>"...그랬으면 내가 자격증을 땄겠니."</p>  
<p>고명환이 멍한 눈으로 말했다.</p>  
<p>"우리가...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?"</p>  
<p>이게 꿈이라면 분명 악몽이겠지.</p>  
<p>박희진은 마수들과 새까만 '무언가'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침음성을 흘렸다.</p>  
<p>동시에 다른 걱정 하나가 떠올랐다.</p>  
<p>'여기서 나가면 분명...'</p>  
<p>생존자로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 확실했다.</p>  
<p>그땐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?</p>  
<p>박희진은 레드 게이트 안에서 일어난 일들과 성진우란 사람에 대해 설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.</p>  
<p>그렇게 말했더니.</p>  
<p>"저기, 하지만요."</p>  
<p>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던 윤기중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.</p>  
<p>"나가서의 일을 걱정한다는 건 엄청 대단한 일 아니에요?"</p>  
<p>멤버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상급 던전.</p>  
<p>그것도 레드 게이트.</p>  
<p>절대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곳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.</p>  
<p>전부 한 사람의 힘 덕분이었다.</p>  
<p>박희진의 시선이 진우에게로 향했다.</p>  
<p>'성진우 씨, 당신...'</p>  
<p>감사함과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에 가까운 마음이 생겨났다.</p>  
<p>푹!</p>  
<p>보스의 어깨에 '카사카의 독니'가 꽂혔다.</p>  
<p>['효과:마비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저항력이 높아 효과가 취소되었습니다.]</p>  
<p>['효과:출혈'이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의 저항력이 높아 효과가 취소되었습니다.]</p>  
<p>적들의 레벨이 높아지면서 요즘 '카사카의 독니' 추가 효과는 거의 먹히지 않게 되었다.</p>  
<p>하지만 상처를 남긴 것만 해도 컸다.</p>  
<p>'좋아!'</p>  
<p>상처가 점점 늘어나면서 보스의 빠른 움직임에 조금씩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"크아악!"</p>  
<p>이미 보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지워진 지 오래였다.</p>  
<p>진우, 이그리트, 아이언 3인의 공격을 자유롭게 피해 내던 보스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.</p>  
<p>'조금만 더 밀어붙이면!'</p>  
<p>아이언이 보스를 끌어안았다.</p>  
<p>"지금!"</p>  
<p>진우가 신호하자 이그리트가 뒤로 빠졌다. 진우도 같이 뒤로 물러났다.</p>  
<p>보스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무슨...?"</p>  
<p>시전이 끝난 마법병의 폭발 주문이 아이언에게 쏟아졌다.</p>  
<p>콰과광-!</p>  
<p>퍼엉!</p>  
<p>"커헉!"</p>  
<p>보스가 처음으로 신음을 흘렸다.</p>  
<p>놈이 몸을 비틀자 아이언의 팔이 떨어져 나갔다.</p>  
<p>콰드득!</p>  
<p>보스의 독기 어린 시선이 진우를 향했다.</p>  
<p>"크아아아악-!"</p>  
<p>진우는 다시 한 번 감탄했다.</p>  
<p>'저런 상처를 입고서도 아직 저 정도의 힘이!'</p>  
<p>과연 상급 던전의 보스였다.</p>  
<p>그러나 승부의 추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.</p>  
<p>'단검 투척!'</p>  
<p>아까 그 백귀에게 던졌던 것처럼 단검 투척으로 '나이트 킬러'를 날리고 지배자의 손길로 추진력을 더했다.</p>  
<p>슉-!</p>  
<p>단검이 눈 깜짝할 사이에 쇄도해왔다.</p>  
<p>'큭!'</p>  
<p>피하기 어렵겠다고 직감한 보스가 자신의 단도로 날아오는 단검을 쳐냈다.</p>  
<p>콰직!</p>  
<p>'나이트 킬러'가 어찌나 빠른 속도로 날아왔는지 막아 내는 단도에 쩌억 금이 갔다.</p>  
<p>동시에.</p>  
<p>'은신' 스킬과 '질주' 스킬로 보스에게 접근한 진우가 '카사카의 독니'를 놈의 옆구리에 박아 넣었다.</p>  
<p>푹!</p>  
<p>보스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커헉!"</p>  
<p>하지만 그 와중에도 놈은 진우의 손목을 붙들었다.</p>  
<p>곱게 죽어 주진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.</p>  
<p>"크아악!"</p>  
<p>보스가 다른 한손으로 단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순간.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거대한 망치가 보스의 머리를 내려찍었다.</p>  
<p>투쾅!</p>  
<p>보스는 그대로 눈 위에 머리를 처박았다.</p>  
<p>보스의 뒤에는 어느새 두 팔이 재생된 아이언이 망치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.</p>  
<p>또다시 망치가 아래를 향했다.</p>  
<p>부웅-</p>  
<p>콰직!</p>  
<p>다음 공격을 준비하던 이그리트가 검을 허리에 달린 검집에 밀어 넣었다.</p>  
<p>진우도 단검들을 창고로 돌려보냈다.</p>  
<p>예상대로 메시지가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던전의 주인을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'휴, 겨우 끝났다.'</p>  
<p>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힘든 승리였다.</p>  
<p>이제 숨 좀 돌리려는데 아이언을 보는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 해졌다.</p>  
<p>"야, 야, 그만 좀."</p>  
<p>진우가 황급히 만류했다.</p>  
<p>또 망치를 내려치려던 아이언이 그제야 손을 멈췄다. 원본을 닮아서 그런지 끝까지 무식한 놈이었다.</p>  
<p>이미 보스의 사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.</p>  
<p>'하지만 그림자는 상관없지.'</p>  
<p>진우가 피식 웃었다.</p>  
<p>어려운 싸움 끝에 값진 보상. 원하던 것이 발아래 있었다.</p>  
<p>진우가 나직이 명령했다.</p>  
<p>"일어나라."</p>  
<p>\*\*\*</p>  
<p>벌써 새벽 3시.</p>  
<p>레드 게이트 근처를 지키는 네 사람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.</p>  
<p>보다 못한 현기철이 말을 꺼냈다.</p>  
<p>"여기는 저희가 지키고 있을 테니 사장님은 먼저 들어가시는 게 어떠십니까?"</p>  
<p>"길드원들이 저 안에 갇혀 있는데 제가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?"</p>  
<p>백윤호는 단호했다. 한 길드의 수장이자 현역 S급 헌터로서 안 될 말이었다.</p>  
<p>그때 안상민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어? 레드 게이트가!"</p>  
<p>현기철, 주성찬도 레드 게이트의 이상을 발견했다.</p>  
<p>"레드 게이트가 열립니다!"</p>  
<p>"던전이 클리어 됐어요!"</p>  
<p>"사람들이...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!"</p>  
<p>백윤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'김철이! 김철이 해낸 건가!'</p>  
<p>우르르-</p>  
<p>전원이 게이트 앞으로 몰려갔다.</p>  
<p>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백윤호의 시선이 리더인 김철을 찾아 헤맸다.</p>  
<p>하지만 모든 인원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김철은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'어? 어? 이상한데?'</p>  
<p>김철만 믿고 있으라던 주성찬도 자신만만한 태도는 어디 가고 점점 표정이 이상해졌다.</p>  
<p>"박희진 헌터님! 고명환, 윤기중 헌터님!"</p>  
<p>"성진우 헌터님!"</p>  
<p>한송이와 뒤따라 나오는 진우를 발견한 안상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.</p>  
<p>'그럼 그렇지!'</p>  
<p>주성찬의 굳은 얼굴과 대비됐다.</p>  
<p>하지만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. 성진우를 포함한 다섯 명이 나오자 게이트가 스르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.</p>  
<p>"설마...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입니까?"</p>  
<p>지친 표정의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질문했던 현기철의 얼굴이 굳어갔다.</p>  
<p>'이럴 수가...'</p>  
<p>현기철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들고 있던 명단에서 사망자들의 이름에 줄을 그었다.</p>  
<p>슬프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.</p>  
<p>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윤호가 기함을 내질렀다.</p>  
<p>'하급 헌터들만 돌아왔다고? A급은커녕 B급은 한 명뿐?'</p>  
<p>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?</p>  
<p>"가자. 데려다줄게."</p>  
<p>한송이를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진우의 손목을 백윤호가 붙잡았다.</p>  
<p>"이봐요, 잠깐만."</p>  
<p>탁!</p>  
<p>진우가 손을 뿌리쳤다.</p>  
<p>그러자 백윤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.</p>  
<p>"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."</p>  
<p>진우가 돌아보았다.</p>  
<p>"지금은 피곤합니다. 물어볼 게 있으면 댁의 길드원들에게 물어보시죠."</p>  
<p>참다못한 백윤호가 신원을 밝혔다.</p>  
<p>"나 백호 길드의 마스터인 헌터 백윤호입니다."</p>  
<p>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다.</p>  
<p>"그래서요?"</p>  
<p>진우의 냉담한 반응에 백윤호의 눈동자가 마수처럼 변해 갔다.</p>  
<p>완전히 짐승의 두 눈이었다.</p>  
<p>"우리는 이번 일로 아홉 명의 길드원을 잃었습니다. 사장인 내가 몇 가지 물어볼 권리 정도는 있을 텐데요?"</p>  
<p>이건 부탁이 아니다.</p>  
<p>명령.</p>  
<p>혹은 협박.</p>  
<p>뭐라고 불러도 진우를 순순히 보내 줄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그런데 진우가 눈을 부릅떴다.</p>  
<p>S급인 백윤호가 진심으로 내뿜는 적의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.</p>  
<p>"내가 그 나머지 세 사람을 구했어. 당신이 사장이라면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?"</p>  
<p>숨 막히는 압박감에 백윤호가 적의를 거둬들였다.</p>  
<p>구구절절 맞는 말.</p>  
<p>반박할 구석 따윈 없었다.</p>  
<p>"...미안합니다."</p>  
<p>백윤호가 고개를 숙이자, 진우가 다시 돌아섰다.</p>  
<p>"한송이, 가자."</p>  
<p>"네."</p>  
<p>한송이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진우를 따랐다.</p>  
<p>이윽고 두 사람은 승합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.</p>  
<p>'말도 안 되는...'</p>  
<p>머릿속이 헝클어진 백윤호가 생존자들 중 유일하게 상급 헌터인 박희진에게 뛰어갔다.</p>  
<p>"저기, 박희진 씨."</p>  
<p>현기철이 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박희진이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저 사람 뭡니까? 왜 저렇게 저기압인 겁니까?"</p>  
<p>천신만고 끝에 레드 게이트에서 돌아왔을 텐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?</p>  
<p>박희진이 자기도 의문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모르겠어요. 보스를 잡고 나서 그 앞에서 뭐라고 세 번 외치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..."</p>  
<p>"그전까진 괜찮았습니까?"</p>  
<p>박희진이 고명환과 윤기중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거렸다.</p>  
<p>"참 별난 사람이네..."</p>  
<p>백윤호는 진우가 사라진 골목을 보면서 중얼거렸다.</p>  
<p>그러자 안상민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몸둘 바를 몰라 했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, 사장님. 오늘은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걸 겁니다. 제가 보기에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."</p>  
<p>"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"</p>  
<p>"예?"</p>  
<p>백윤호가 안상민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왜 아직 저 사람을 영입 못한 겁니까?"</p>  
<p>"예에?"</p>  
<p>안상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.</p>  
<p>하지만 백윤호가 느꼈던 당혹감만큼은 못하리라.</p>  
<p>'나를 상대로...'</p>  
<p>백윤호는 방금 마주쳤던 진우의 눈빛을 떠올리며 마른침을 삼켰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순간 눈앞의 사내와 싸우려면 자신도 팔 하나는 잃을 각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'어쩌면 그 이상일지도...'</p>  
<p>백윤호의 의도를 알아챈 안상민이 급하게 답했다.</p>  
<p>"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"</p>  
<p>"그런 말로는 부족합니다."</p>  
<p>백윤호의 눈이 빛났다.</p>  
<p>성진우.</p>  
<p>역시 안 과장의 눈은 틀리지 않았다.</p>  
<p>"앞으로 모든 걸 지원해 드리겠습니다. 저 남자를 꼭 우리 길드로 데려오세요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